네일, KBO리그 '강렬한 데뷔전…자신의 가치 증명

27일 롯데戰 6이닝 5피안타 9K 1실점 '완벽投'…첫승 신고

최고 구속 150㎞·위력적인 스위퍼…롯데 타선 압도, 팀 3연승 이끌어

'KKKKKKKKK'

첫 등판에서 우려를 완전히 떨쳤다. KIA의 새 외국인 투수 네일이 완벽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KIA가 옵션 15만 달러 포함 총액 70만달러(약 9억4천만원)에 영입한 제임스 네일은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2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최종 기록은 6이닝 5피안타 1볼넷 9삼진 1실점.

시범경기에서 3차례 등판했을 때에는 '반신반의'였다. NC전에서 중간 계투로 나와 2이닝 3피안타 1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으나, 첫 선발투수로 나선 두산전은 3.1이닝 동안 8피안타 1볼넷 4삼진 6실점의 난조를 보이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뤘다. 최종 담금질인 삼성전도 5이닝 3실점의 평범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네일은 가장 중요한 데뷔전에서 완벽 투구를 선보였다. 6회 1사 고승민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기 전까지 단 2안타만을 내주며 롯데 타선을 완벽 봉쇄했다.

1회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시작으로 6회까지 총 9개의 삼진쇼를 펼쳤다. 6회에 홈런을 맞고 실점한 후 연속 안타를 내주며 흔들리는 듯 했으나, 후속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하고 위기를 벗어났다.

네일의 완벽투를 앞세운 KIA는 8대2로 승리하며 개막 3연승을 질주했다.

네일은 전체 85개의 공 가운데 속구 5개를 뺀 80개를 현란한 변화구로 채웠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이 나왔고, 투심 패스트볼 29개,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 21개, 체인지업 17개, 컷 패스트볼(커터) 12개, 커브 1개 등 5개 구종을 던졌다. 속구는 1회에 3개, 3회엔 단 2개 나왔다.

현란한 네일의 변화구에 롯데 타자들의 방망이는 연신 헛돌았다. 타순이 두 번 돌 때까지 롯데 타선은 삼진 8개를 당했다. 총 투구 수 85개 중 스트라이크가 57개로 안정적인 제구도 뽐냈다.

경기 운영면에서도 합격점이었다. 5회까지 18타자를 맞아 12타자에게 초구를 스트라이크(파울 포함)로 잡으며,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선점한 후 범타나 삼진처리했다.

지난해 KIA는 숀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를 영입했지만, 시즌 도중 모두 부진으로 KBO리그를 떠났다. 2022시즌은 숀 놀린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로니 윌리엄스는 불안한 제구력으로 시즌 도중 퇴출 수순을 밟았다.

KIA의 외국인 투수 농사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KIA는 올 시즌 안정적인 전력으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탄탄한 투타 밸런스를 바탕으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영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평가다.

네일이 아직 1경기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우승을 목표로 하는 KIA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주홍철 기자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 선발 등판 KBO리그 데뷔전을 승리로 이끈 KIA 새 외국인 투수 네일이 경기 후 팀 동료들로부터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10일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광주FC 승리에 쐐기를 박는 PK골을 성공시킨 최경록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强해진 광주…홈에선 더 强하다

31일 대구FC와 시즌 첫 '달빛 더비'…홈 연승으로 1위 탈환 총력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시즌 첫 '달빛 더비'에서 홈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31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라운드 포항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0-1로 아깝게 패배한 광주는 대구와의 '영호남 라이벌 대결' 승리를 통해 다시 1위 복귀를 노린다.

광주는 2017년 3월 이후 맞붙은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 6차례 대결에서 1무 5패를 기록했다. 통산 전적은 7승 4무 7패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홈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맞대결에서 '홈경기 징크스'를 과감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지난 26일, 태국 원정에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미드필더 정호연이 대구의 밀집 수비를 깨트리는 '중원의 사령관'으로 나선다.

A매치 휴식기 동안 U-23 대표팀에 선발돼 사우디전 결승골을 기록한 엄지성은 물오른 공격 본능으로 시즌 마수걸이 골에 도전한다.

지난 포항 전에서 집중 마크를 당했던 가브리엘은 동료를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아직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한 대구는 광주 원정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세징야 - 에드가 - 고재현으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 편대를 앞세워 광주 골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후방을 책임지는 요시노와 홍철도 경계 대상이다. 시즌 1, 2호 골을 기록한 이들은 정교한 킥을 바탕으로 언제든 결정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시즌 초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밀집 수비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광주FC, A매치 휴식기 동안 남해 합숙 훈련을 통해 '밀집 수비 파훼법'을 연마했다.

우승을 바라보는 광주로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대구, 인천(4월3일), 김천(4월6일)과의 3연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야 한다.

세 팀 모두 역습에 강한 팀이란 점에서 광주FC의 올 시즌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매 경기 '상식 밖의 전술'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햄스트링 부상' 황대인, 1군 엔트리 말소…2-4주후 재검

KIA타이거즈 황대인이 부상으로 결국 전력에서 이탈했다.

28일 KIA에 따르면 "MRI 검사 결과 황대인의 부상은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단 붓기와 피가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 2주-4주 후에 재검진 후 재활스케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대인은 전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3회말 우익수 앞 안타를 치고 베이스 러닝을 하다 다리부상을 입고 앰뷸런스로 이송됐다.

이날 경기에서 1루수로 출전한 황대인은 2타수 2안타 1타점 맹타를 휘둘렀지만, 부상으로 이후 서건창과 교체됐다.

KIA는 개막을 앞두고 주장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진데 이어 황대인마저 당분간 뛸 수 없게 돼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롯데의 시즌 3차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KIA 황대인이 지난 27일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3회말 안타를 치고 베이스 러닝을 하다가 다리부상을 입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29일 장소를 잠실로 옮겨 두산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주홍철 기자

전남 당구 김행직·최호일, '환상 콤비'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남자 3쿠션 복식 정상…4년 만에 우승 합작

전남 당구 '환상의 복식조' 김행직(진도군청)과 최호일(전남당구연맹)이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12회 국토정중앙배 2024 전국당구대회 남자 3쿠션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김행직과 최호일은 지난 25일 강원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3쿠션 복식 경기 결승에서 김동룡(서울당구연맹)-박정우(경동고부설방통고)를 30-21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카치 방식으로 치러진 3쿠션 복식 대결에서 김행직-최호일은 정승일-김웅대(서울)를 30대11(20이닝)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행일-최호일은 경기 초반 김동룡-박정우를 상대로 고전하며 5대10으로 뒤지다 13이닝부터 1점씩 점수를 모으기 시작해 16이닝에는 2득점을 올리고 10대10 동점을 만들었다.

18이닝에 번갈아 1점씩 2득점한 김행직-최호일은 12대11로 역전에 성공했고, 19이닝에 또 2점을 보태 14대11로 달아났다.

이어 22이닝에 6득점의 장타를 기록하며 점수차를 벌였고, 결국 32이닝에서 남은 3득점을 따내며 30대2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제12회 국토정중앙배 2024 전국당구대회 남자 3쿠션 복식 우승을 차지한 김행직(왼쪽)과 최호일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당구연맹 제공〉

이로써 '선후배 복식조' 김행직과 최호일은 2020년 8월 열린 '2020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에서 첫 3쿠션 복식 우승을 차지한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 메달을 손에 넣었다.

/박희중 기자